

# 속도내는 양현종 “WBC 준비 이상없다”

3월 6일 개막전 준비 한창

세 번째 불펜피칭 소화

평가전도 던지고 싶어

파란 유니폼의 설렘 좋아

많은 야구팬이 양현종(29·KIA 타이거즈)과 함께 KIA의 붉은 색 유니폼을 떠올린다. 하지만 한국 야구 대표팀의 푸른색 유니폼도 아주 잘 어울린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 대표팀의 첫 훈련이 열린 13일 일본 오키나와현 우루마 구시카와 구장에서 만난 양현종은 “파란색 유니폼이 낯설기는 해도 태극마크가 주는 설렘이 있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 기분은 입어본 사람만 안다”고 했다.

말뿐이 아니다. 양현종은 WBC 대표팀을 위해 ‘속도’를 높였다. 그는 소속팀 KIA와 마지막 훈련을 한 11일 킨 구장에서 불펜 피칭을 했다. 이번 스프링캠프 들어 3번째 불펜 피칭이었다. 천천히 구위를 끌어올리는 걸 선호하는 양현종이 3월 6일에 개막하는 WBC를 위해 일찌감치 몸을 만들었다.

김인식 WBC 대표팀 감독도 “양현종은 ‘슬로 스타터’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벌써 불펜 피칭을 세 번이나 했다”며 양현종을 “대표팀에 오면 달라지는 좋은 사례”로 꼽았다.

양현종은 “소속팀 김기태 감독님께서 WBC 대회 일정에 맞춰 몸을 만들도록 배려해 주셨다. 그 덕에 좋은 몸 상태로 대표팀 훈련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몸을 간단히 풀고 내일 다시 불펜 피칭을 할 계획이다. 코칭스태프가 결정해주시면 평가전에도 던지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위와 몸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다.

WBC에서 사용하는 공인구 롤링스에 대한 적응도 걱정하지 않는다. 롤링스는 한국프로야구 공인구보다 표면이 미끄럽다.

양현종은 “체인지업을 던질 때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감독은 양현종을 ‘확실한 선발 투수’로 보고 있다. 다음달 이스라엘(6일), 네덜란드(7일), 대만(9일)과 WBC A조 예선에서 차례대로 만나는 한국은 양현종을 꼭 짊어줘야 할 경기에 투입하려 한다.

양현종은 “이스라엘, 네덜란드, 대만 모두 좋은 팀이다. 어떤 경기가 되더라도 나가면 이길 수 있도록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구시카와 구장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야구 대표팀 훈련에서 양현종이 투구 동작을 하고 있다. 대표팀은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23일까지 전지훈련을 한다. /연합뉴스

## 타자들도 화기애애

김인식 감독 “선수들 몸상태 좋아”...KIA 최형우 “첫 대표팀 훈련 배우는 즐거움 있다”

“저런 공은 저기 멀리까지 날려야지.”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갈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인 김인식(70) 감독이 농담을 담아 타자들을 타박한다. 하지만 김 감독의 표정도, 선수들의 얼굴도 밝다.

WBC 대표팀은 13일 일본 오키나와현 우루마 구시카와 구장에서 첫 훈련을 했다. 오전 9시 40분에 우루마시의 환영 행사를 간단히 치르고 10시부터 훈련에 돌입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뒤 야수진은 평고를 받고, 투수들은 캐치볼을 했다. 곧 투수들이 수비 훈련에 합류해 번트 상황, 투수 1루 베이스 커버 등 훈련을 이어갔다. 오후에는 타자들의 타격 훈련과 투수들의 러닝 훈련이 이어졌다.

원손 에이스 장원준(현대 타이거즈)과 차우전(LG 트윈스)은 불펜피칭을 소화했고, 선동열 투수코치로부터 “준비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식 훈련은 오후 2시에 끝났지만 이용규(한화 이글스), 손아섭(롯데 자이언츠), 허경민(두산 베어스)은 추가 타격 훈련을 했다. 다른 선수들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몸을 더 풀었다.



13일 오전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구시카와 구장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야구 대표팀 훈련에서 김태균이 배트를 휘두르고 있다. 왼쪽은 최형우. /연합뉴스

타자들을 유심히 지켜본 김인식 감독은 “배팅볼을 던지는 사람들이 편하게 던져주는데 이런 공은 다 멀리 보내야지”라고 농담을 던지면서도 “선수들이 몸을 잘 만들었다. 이제 겨우 첫날을 보냈지만 전체적으로 몸놀림이 좋아 보인다”고 총평했다.

이어 “최형우(KIA 타이거즈)와 김태균(한화 이글스)의 타구 질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선수들의 표정도 밝았다. 최형우는 “처음 대표팀에 뽑혀 첫 훈련을 했는데 정말 즐거웠다. 다른 선수들 훈련을 보며 배우는 즐거움도 있었다”고 했다.

14일에도 대표팀은 오전 10시에 훈련을 시작한다. 양현종(KIA) 등 투수 6명의 불펜피칭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 KIA 시즌 멤버십 회원 모집

KIA 타이거즈가 2017시즌 멤버십(어린이·성인) 회원을 모집한다.

어린이와 성인 회원 모집은 구단 홈페이지 팝업(www.tigers.co.kr)창을 통해 이뤄지며, 회원에게는 KIA 챔피언스 필드 입장권 예매 시 2000원 할인(본인 한정), 타이거즈숍 상품 10% 할인, 선발투수 공지 및 경기결과 SMS 발송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5~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회원은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비는 7만2000원이다. 어린이 회원에게는 KIA 모자, 티셔츠, 나노블록(퍼즐 중 택일), 카드지갑, 물병이 기념품으로 주어진다.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인회원도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한다. 가입비는 8만5000원이며 성인회원은 2가지 상품 패키지 가운데 1종류를 기념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포인트 패키지’는 온라인 상품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8만원 상당의 포인트와 상품(모자, 우산, 응원 손수건)이며, ‘유니폼 패키지’는 유니폼(밀리터리, 핑크 중 택일)과 모자, 우산, 응원 손수건, 팀블러구 구성돼 있다. (문의 마케팅팀 070-7686-8090)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스피스, PGA 페블비치 프로암 우승

통산 9승...노승열 8위

조던 스피스(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총상금 72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스피스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72·681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2개를 잡아내며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9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스피스는 단독 2위 켈리 크래프트(미국)를 4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스피스가 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최근 사례는 지난해 5월 단엔텔루카 인비테이셔널이었다. 9개월 만에 PGA 투어 개인 통산 9승째를 거둔 스피스는 우승 상금 129만 6000달러(약 14억9000만원)를 받았다.

3라운드까지 6타 차 단독 선두를 달려 우승이 유력했던 스피스는 이날 2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은 이후 줄곧 파 행진을 이어갔다. 그녀는 사이 이날 하루에 5타를 줄인 크래프트에게 3타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그러나 스피스는 17번 홀(파3)에서 약 9m 긴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 4타 차로 달아나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이번 대회 4라운드 내내 언더파 점수를 기록한 스피스는 올해 출전한 4차례 투어 대회에서 매 라운드 언더파 스코어를 내는 꾸준함도 보여줬다. 세계 랭킹 6위 스피스는 지난해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 최종라운드부터 최근 17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날 우승으로 스피스는 타이거 우즈(42·미국)에 이어 만 24세 이전 두번째로 많은 승수를 올린 선수가 됐다. 스피스는 1993년 7월생으로 만 23세 7개월이다. 우즈는 만 24세 이전에 15승을 거뒀다.

노승열은 이날 2타를 줄여 최종합계 9언더파 278타로 로브 오옌하임(미국)과 함께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다. 노승열이 PGA 투어 10위 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지난해 10월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 공동 8위 이후 4개월 만이다.

다스틴 존슨(미국)이 14언더파 273타로 단독 3위, 제이슨 데이(호주)는 12언더파 275타로 공동 5위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 박태환 새해 첫 전훈...세계선수권 모드로

내일 호주 시드니로 출국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월드 챔피언 자리에 복귀하려는 박태환(28·인천시청)이 본격적인 담금질을 위해 15일 호주로 떠난다.

박태환을 관리하는 (주)팀지앤피는 13일 “박태환이 호주 시드니에서 2017년 첫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15일 오후 출국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오는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일정에 맞춰 귀국할 예정이다.

박태환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달 23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공개훈련을 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후 서울에서 가벼운 훈련을 이어온 박태환은 이번 시드니 전훈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태환은 지난해 수영 인생에서 가장 심한 굴곡을 겪은 끝에 부활을 알렸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한 국제수영연맹(FINA)의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나서 ‘이중 처벌’ 성격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막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뻔했다.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단을 구한 끝에 겨우 리우올림픽에 참가했으나 출전한 세 종목에서 모두 예선 탈락하는 등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리우 실패 이후 초심으로 돌아간 박태환은 차근차근 재기의 발판을 놓아갔다.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모두 대회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했고, 11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4관왕에 오르며 국제무대 경쟁력까지 재확인했다.

그리고 12월에는 FINA가 주관하는 쇼트코스(25m)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오르며 마침내 세계 정상의 자리로 되돌아왔다. 박태환은 올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태환이 올림픽 규격의 50m 롱코스에서 펼쳐지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딴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 이후 6년 만이다. /연합뉴스

## “온라인·모바일로 야구 꿈나무 소양교육”

KBO ‘유소년 사이버 아카데미 플랫폼’ 오픈

한국 야구 꿈나무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유소년 사이버 아카데미 플랫폼’이 구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3일 “온라인 홈페이지(www.edubaseball.or.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현재 안드로이드 가능·iOS는 추후 오픈 예정)을 통해 유소년 사이버 아카데미 플랫폼을 오픈했다”며 “야구와 관련한 다양한 사이버 교육을 비롯한 심리 인성 검사, 1:1 멘토링 등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유소년 야구 선수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유소년 야구 선수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체력, 심리, 야구 기능 등 야구선수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배울 수 있으며, 개인 훈련 일지 작성 등을 통해 본인의 성장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야구 지도자와 학부모들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도자는 플랫폼을 통해 소속 선수들의 기본 정보와 경기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선수 교육에 도움

이 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 학부모도 자녀의 성장 상태 열람과 영양관리, 진로교육 등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KBO는 시·공간적 제한이 없는 교육 서비스를 실현한 것은 물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향후 유소년 야구에 대한 과학적 지원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유소년 사이버 아카데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 야구팀별 부여된 관리자 ID를 학교 관리자 또는 지도자가 확인,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야구팀별로 유소년 야구 선수와 학부모가 회원가입을 하고 이를 관리자 또는 지도자가 인증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 이용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edubaseball.or.kr)와 전화(070-7711-2988)로 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